

## Chapter 1. 호세아

### ❖ 호세아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

- 12 권의 소선지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책
  - 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이고, 사역 연대는 대략 B.C. 746-724 로 추정
    -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 세 말기부터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 동시대 선지자로는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 선지자로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서 사역!
-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 =>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or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 총 14 장으로 크게 2 부분으로 구성됨.
  - ①. 1-3 장: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
    - =>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도덕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이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 ②. 4-14 장: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저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 =>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세히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
    - =>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 => 호 6 장 1-3 절, 호 10 장 12 절
  - 호 6 장 1-3 절,
    - 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②.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③.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 호 10 장 12 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 호세아서의 특징
  - 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
  - ②. ‘호세아’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인 ‘아모스’가 주로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정의와 타락상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면, ‘호세아’는 그와 같은 부정의와 타락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규탄!
  - ③.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 매우 화려하게 묘사함.

1. 호세아 1 장-2 장 1 절.

▪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후,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 범죄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돌이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1)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1-2 절)

- 1 절을 주목하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하였음!!!
  - 남 유다의 왕들 : ‘웃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 북이스라엘 왕 :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 학자들의 견해 => 이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

➤ 참고: 당시 여로보암 2 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

-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시대!
- 정치적으로 신흥 강대국인 앗수르의 공격으로 극도로 국력이 쇠약해진 아람(수리아)을 공격하여, 수도 다메섹을 포함해 가나안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음! (왕하 14 : 25-27)
- 경제적으로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의 국가적 교역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함!
-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상태에 빠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

-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 ‘인도’ 라는 뜻!
- 아버지는 ‘브에리’ = 이름의 뜻은 ‘생’ ‘설명하는 자’란 뜻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소개되지 않음.

▪ 그럼 당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 2 절 a. ‘\_\_\_\_\_여자를 맞이하여, \_\_\_\_\_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심!

①. ‘음란한 여자’ = 히/원 ‘에쉐트 제누님’이란 말로 ‘직업적인 창기’를 가리키는 말!

a. 현대 학자들은 이 여인을 당시 바알 신전에 속해 있던 ‘직업적 창기’로 해석.

②. ‘맞이하여’ = 히/원 ‘라카흐’란 말로 ‘공식적으로 결혼하라’는 말!

③. ‘음란한 자식들’ = ‘음란함으로 생긴 자식들’ 곧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의 간음으로 생긴 자식들을 의미함!

-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셨는가?
  - 2 절 b,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

➤ 참고: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하셨음!!

- ①. 이사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도록 하심! (사 20:1-6)
- ②. 예레미야: 결혼을 포기했고, 장례식을 피하며 살게 하심! (렘 16:1-9)
- ③. 에스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하심! (겔 24:15-27)
- ④. 호세아: 음란한 여인(창기)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기르도록 하심! (호 1:2)

2)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_\_\_\_, 딸\_\_\_\_ 총\_\_\_\_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3-9 절)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가 택한 여인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음!
  - ①. ‘디블라임’이란 말은 ‘데벨라’ 곧 ‘무화과 떡’을 상징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
    - 당시 ‘무화과 떡’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쳐지던 떡으로 호색과 쾌락을 상징!!
  - ②. ‘고멜’은 ‘완성’, ‘완전’을 뜻하는 ‘가메르’란 말에서 파생한 말로 ‘완전한 음란’을 상징!!
    - 참고로 창세기 10 장에서는 ‘고멜’이 한 족속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음.
    -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로 ‘고멜’이란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

- ‘호세아’와 혼인한 ‘고멜’은 이후 3명의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은 각 자녀의 이름을 직접 ‘호세아’에게 지어주셨습니다!

①. 첫째 아들, ‘이스르엘’

-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흠으신다, 뿌리신다’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
- 특별히 4 절 주목하면, 하나님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선포하심!  
=> 곧 ‘이스르엘’이란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의 집과 연관된 이름!!

➤ 참고: 북이스라엘 10대 왕인 ‘예후’와 ‘이스르엘’

-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의 군대장관!
-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사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란을 일으켜 ‘이스르엘’에서 ‘요람’왕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이세벨 여왕 + 아합의 아들들 70 + 모든 친인척들)을 진멸함!
-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과 그의 형제들 42명도 죽임!
- 곧 그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 일을 시행했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보다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우상숭배를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음!!

-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5 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선언!!  
=> ‘이스라엘의 활’ 곧 저들이 믿고 자랑하던 정치적/경제적 힘들을 다 꺾어버리실 것!

②. 둘째 딸, ‘로루하마’

- 이름의 뜻: ‘로’=‘결코~아니다’ + ‘루하마’ + ‘은총/동정/공휼’, 곧 ‘결코 은총/동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  
=>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을 의미!  
=> 6 절에서도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공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 이는 곧 앞으로 닥쳐올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재난을 더욱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 그런데 7 절 주목하면! 북이스라엘과 반대로 남유다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심!!  
=>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공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참고로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 B.C. 701 년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 앗수르 군대를 물리쳐주심!
  - 이 때에 앗수르 군대는 185,000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함!  
(왕하 19 장 / 대하 32 장 21 절)

③. 셋째 아들, ‘로암미’

- 이름의 뜻: ‘로’=‘결코~아니다’ + ‘암미’=‘나의 백성’, 곧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
-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더 확고하게 선포하신 것!!
- 뿐만 아니라 9 절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심!!

- 참고로 9 절의 이 선언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
  - 출애굽기 6 장 7 절, 레위기 26 장 12 절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심!!
  -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고 믿고 살아감!!
  -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 ‘로암미’라 선언하시며,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

3)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하신 후, 즉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11 절)

■ 10 절 주목!

- 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약속!!

②.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 사마리아를 비롯한 약속의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도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심!!

■ 11 절 주목!!

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을 것이고, 한 우두머리, 곧 한 왕 (리더)을 따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

=> 가까운 역사로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볼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 것!!

②.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 '그 땅'은 1 차적으로 앗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하겠으나, 영적으로 최악 된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 따라서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새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나눔